

日本の 근현대 일한관계사연구

나가시마 히로키(永島 廣紀)

I. 前提史(1945年8月以前の 연구사 정리를 겸하여) III. 총괄
II. 戰後 근현대한일관계사 연구동향

I. 前提史(1945年 8月以前の 연구사 정리를 겸하여)

메이지기 이후 근대의 일본과 일본인에게 <韓國·朝鮮>은 어떤 존재인가? 이 새롭고도 오랜 역사적 명제의 해답을 단시간에 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음은 여전히 던져져 왔으나 주로 '속죄, 참회'를 기조로 하거나 혹은 그 반동으로 '자기변호·강변' 혹은 이들로부터의 도피적 성격이 강한 '추상, 회고'와 같은 서로 몰교섭적이고 다분히 단순화된 도식으로 말해지기 일쑤였다. 그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의 논설도 각각 어떤 현실의 반영이고 사실(史實)의 조명임에는 틀림 없으나 위의 명제에 대해 전체적인 파악을 명료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닐까.

또 하나의 큰 요인으로 지금까지의 한일관계사연구가 그 전제라 봐야 되는 전전(戰前)의 연구 성과에 대해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무시하거나 무자각적으로 따라 왔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우려 한다. 필자를 포함하여 전전에서 전후까지의 연구 전체를 조감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방법론적인 틀에 기초한 전체상의 파악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글은 그러한 작은 시도이다.

근대 뿐 아니라 전전기의 한일관계사를 논구하는 학술적 접근방법으로는 역시 정치 외교사 내지는 통상 경제사가 주류이며 그와 함께 많은 업적이 축적되어 왔다. 덧붙여 실학적 요청, 통치 방침의 추세에 따른 농업사, 기술사, 고고미술사, 민족사, 법제사 등의 분야도 대체로 '관학'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한편 사상 문화 민속 종교 관련 연구에서도 역시 관측의 기록에 의한 정보의 축적이 압도적이고 특히 村山智順에 의한 일련의 조사보고가 널리 알려져 있다. 또 한편으로 관측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는 어느 시기까지는 이른바 <朝鮮通>적인 재야의 일본 언론인이나 조선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오히려 관측이 나중에 따라오게 된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었다.

그런데 전전기(戰前期)에는 순수한 학술적 논쟁은 성립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후술하는 전후

의 학설 상의 쟁점(특히 ‘내재적 발전론’ 문제)의 이론적 전제 혹은 그것을 실제로 담당하는 구체적인 인물이나 연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전후의 연구사를 정리하는 전제 작업으로 전전기의 연구의 정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약간의 지면을 할애하여 그러한 전전기의 상황을 통괄함으로써 일본의 근대한일관계사의 기원을 풀어가는 작업의 시작으로 삼고 싶다.

여기에서는 먼저 개별적인 연구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 고찰로서 한일합방 이후에 시작되는 일본에 의한 <朝鮮史>연구, 그리고 <史料編纂>의 과정을 정리¹⁾해보겠다.

먼저 처음으로 드는 인물과 업적은 오다 세이코(小田省吾(1871~1953))에 관한 것이다. 小田는 保護國期の 구한국정부시대부터 조선총독부 시정기에 이르기까지 문교정책 및 修史관련 사업 전반에 오랜 동안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어 그의 연보²⁾적인 상황을 따라가면 일본통치기의 해당 사업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三重縣 鳥羽 출신의 小田는 第一高等學校를 졸업하고 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한다. 일본의 초창기 근대대학제도 아래에 사학교육을 받은 세대³⁾이다. 小田는 대학 졸업 후 몇 군데의 중등학교에서 근무한 뒤 1908년 11월에 통감부 설치 하의 한국정부·學部編輯局의 서기관(奏任

1) 筆者는 이미 <일본 통치기의 조선에서의 <史學>과 <史學>의 위상>(《歷史學研究》 795, 2004년 1월에 근대 일본의 <修史>의 궤적을 고찰하여 <朝鮮史編纂會> 및 《朝鮮史》 간행의 역사적인 위상에 관해 기본적인 정리를 행한 바 있다. 함께 참조 바람.

2) <小田省吾略歷自記>(小田省吾 《辛未洪景來亂の研究》 京城, 小田先生頌壽記念會, 1934년 9월).

3) 註 2) <小田省吾略歷自記>의 기술에 기초하여 필자가 약간 보충(《隆熙三年七月十五日現在 學部職員錄學部大臣官房秘書課, 1909年》, 《靑丘》 第14号 <1955년 1月>등 참조) 한 小田의 연보는 다음과 같다.

1871년 5월 2日 : 三重縣志摩郡鳥羽에서 아버지 有馬百鞭 어머니 高津氏의 차남으로 출생/1883年 : 伯父·小田健作에 입적/1887年 : 神宮皇學館 입학 후 바로 퇴학. 상경하여 國民英學會·東京英語學校에서 배움/1891년 7月 : 第一高等中學校予科에 입학/1896年 7月 : 第一高等學校大學予科第一부를 졸업, 東京帝國大學文科大學史學科에 입학, 坪井九馬三·星野恒·栗田寬·三上參次·井上哲次郎·坪井正五郎·田中義成·那珂通世·林泰輔·大瀬甚太郎·리스·케벨·小泉八雲(한) 들에게 배움/1899年 7月 :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 곧 퇴학. 같은 해 長野縣 師範學校에 봉직/1900年 3月 : 長野縣 師範學校에서 荻中學校로 옮김/1902年 9月 : 德島縣 師範學校 校長에 임명/1907年 7月 : 畝傍中學校長 임명/1908年 1月 : 第一高等學校 교수, 한국정부의 초빙으로 같은 해 11월 17日에 대한제국 학부 서기관, 12월 5일에 경성 부임. 편집국 근무, 교과용 도서 편찬에 종사(三土忠造의 후임업무)/1910年 10月 1日 : 朝鮮總督府 사무관(內務部學務局編輯課長)/1913年 6月 : 京城專修學校長事務取扱 겸무(大正5年 3月까지/1915年 8月 : 施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 심사관/1918年 1月 : 中樞院 편집과장대우축탁으로 일함(朝鮮半島史編纂事業)/1920年 : 朝鮮民事令及民籍法改正調査委員/1921年 6月 : 旧慣及制度調査委員, 同年 10月 1日, 學務古蹟調査課長을 겸무/1922年 4月 : 朝鮮總督府視學官(事務官兼任) 叙高等官二等, 同年 9月, 송광사에서 大般涅槃經의 결본 발견/1923年 : 朝鮮史學會 조직, <朝鮮史講座> 발행. 同11月, 朝鮮帝國大學창립위원회 위원/1924년 1月 : 朝鮮帝國大學 附屬大學예과 개교준비위원회 사무 취급, 同年 5月, 京城帝國大學 予科教授·予科部長(事務官兼任). 同 10月, 學務局 編輯課長 겸임을 물러남/1925年 7月 : 朝鮮史編纂會委員/1926年 2月 : 釜山府史編纂顧問(1932년까지), 同年 4月,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教授(朝鮮史學 第二講座担任)/1927年 7月 : 京城府史編纂委員會顧問, 同年 12月, 叙高等官一等/1930년 4月 : 實錄編纂委員를 위촉, 同年 5月, 靑丘學會 설립/1932년 3月 30日정년퇴임, 同年부 4월부터 강사 위촉(다음 해 3月까지)/1933年 3月 : 中樞院舊慣及制度調査事務위촉, 同 4月, 李王職에 實錄編纂事業의 전임으로 종사, 同 12月, 朝鮮總督府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委員/1945年 : 三重縣鳥羽로 은퇴/1953年 12月 12日 : 향리에서 사망, 향년 83.

官)으로 전입하였다. 한국병합 후에도 계속하여 조선총독부의 사무관으로서 內務部 學務局의 편집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추원의 편찬과장을 겸임하고 1921년부터는 신설된 고적 조사과장도 겸임하였다. 1924년에는 신설된 경성제국대학교수(예과부장)으로 진출되어 1932년 3월의 퇴임 후에도 각종 지방사편찬, 《施政二十五年史》·《施政三十年史》의 책임 편찬, 그리고 李王職·中樞院의 위탁에 의한 <高宗·純宗實錄>의 편찬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 자신의 개별 연구 테마는 다양하여 반드시 근대사 연구자가 아니었다.⁴⁾ 그러나 구한국시대부터 <朝鮮古書刊行會>나 <朝鮮研究會>의 운영⁵⁾에도 관여하였고 또 학무관료 시대 말기부터 시작한 <朝鮮史學會>의 조직화 또 청구학회의 《靑丘學叢》에도 빈번하게 집필하는 등 그는 시종일관 이른바 인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정열을 쏟았다.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中樞院에서의 《朝鮮半島史》의 편찬을 중지시키고⁶⁾ 帝國大學의 <史料編纂>, 文部省의 <維新史料編纂會>조직을 모델로 <朝鮮史編纂委員會>를 1922년 12월에 발족시켰다. 정무총감을 위원장에 추대하고 한편으로 黑板勝美나 內藤湖南을 고문으로 조직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1925년 6월에 <朝鮮史編修會>로 관제화 되었다. 조선사편수회는《朝鮮史》의 편집 간행을 주임무로 하고 부수적으로 <史料探訪>에 의한 사료수집과 편찬 간행작업도 병행하였다. 또 여기에는 修史官·修史官補와 약간의 촉탁이 배치되어 內藤湖南의 제자로 滿鐵의 역사지리조사사업에 종사했던 稻葉岩吉<君山>(1876~1940), 總督府學務局 古蹟調査課 鑑査官에서 同·編輯課 編修官을 거친 藤田亮策(1892~1960), 老論 출신의 유림 재야사가였던 洪熹(1884~1935)등이 초기부터 修史官을 맡고있다. 그리고 바로 京城帝大로 진출해 가는 藤田의 후임으로 黑板의 문하생으로 동경제대를 얼마 전에 졸업한 中村榮孝(1902~1984)가 근무하게 되

4) 예를 들면 <江華條約締結時の寫眞と遺跡について> (《靑丘學叢》 4, 1931년 5월) 및 <江華條約締結當時の追憶-昭和六年三月十四日夜, 篠田李王職次官邸に於ける談話-> <羽島半次郎> (《靑丘學叢》 5, 1931년 8월) 등 사회회(史話會)적 활동이기는 했으나 오다에 의한 사료발굴 활동은 근대사에 까지 이르렀다.

5) 조선고서간행회의 멤버는 다음과 같다(《大東野乘》->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09년 12월>卷末所載의 일람에 의함).

名譽贊成員: 曾禰荒助(韓國統監)·大久保春野(駐劄軍司令官)·宇佐川一正(東拓總裁)·金允植(中樞院議長)·朴齊純(內務大臣)·趙重應(農商工部大臣)/特別贊成員: 石塚英藏(統監府總務長官)·岡喜七郎(內務次官)·若林資藏(韓國警視總監)·俵孫一(學部次官)·倉富勇三郎(法部次官)·松井茂(警務局長)·小宮三保松(宮內府次官)·荒井賢太郎(度支部次官)·木內重四郎(農商工部次官)·兪吉濬(漢城府民會長)/本會評議員: 井上雅二(宮內府書記官)·千葉昌胤(宮內府奎章閣囑託)·河合弘民(東洋專門學校京城分校幹事)·大岡力(京城日報社長)·小田省吾(學部書記官)·黑崎美智雄(奎章閣圖書課長)·前間恭作(統監府通譯官)·國分象太郎(統監府書記官)·淺見倫太郎(高等法院判事)·鮎貝房之進·菊池謙讓·三宅長策(京城控訴院部長)·嶺八郎(東拓秘書長)·釋尾春芳(主幹·朝鮮雜誌社長).

또 조선연구회(《莊陵誌 平壤續志》 <京城, 朝鮮研究會, 1911년 4월> 卷末所載 일람에 의함)멤버는 다음과 같다.

評議員: 本間九介(總督府取調局囑託)·河合弘民(東洋專門學校京城分校長)·前間恭作(統監府通譯官)·福田幹次郎(鐵道管理局通譯官)·菊池謙讓(朝鮮通信社長)·三宅長策(京城控訴院部長)·廣田直三郎(總督府中學校教諭)·小田省吾(總督府事務官)·高橋亨(漢城高等學校學監)·淵上貞助·鮎貝房之進(東洋協會學校講師)·大友友之丞(同校幹事)·青柳綱太郎(同)·飯泉良三(同).

6) <日鮮이 同族인 事實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편찬된 《朝鮮半島史》에 관해서는 朝鮮總督府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纂ノ要旨及順序> (1916년 9월) 및 朝鮮總督府 조선사편수회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1938년 6월)를 참조 바람.

었다.

이렇게 보면 조선사편수회 관계자들은 <帝大 國史學>·<滿鮮史學>에 조선 재래의 史林이라는 각각 이질적인 학통을 포섭하여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일본의 동양사 연구의 큰 조류 중의 하나는 白鳥庫吉 이래의 근대 실증사학의 방법론에 입각한 <滿鮮史>연구이며 그 원류는 那珂通世·林泰輔·리스 등이 있다. 滿鮮史 연구의 중심 멤버들은 위에서 언급한 稻葉岩吉를 비롯하여 池内宏·今西龍 등 초기의 京城帝大 사학과 교수진이었다.

단 이 다음 세대는 동양사연구에서 조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舊制)高等學校→帝國大學>으로 가는 소위 사회적 엘리트 양성의 기존노선을 걷는 中村榮孝(第一高-東京帝大)나 末松保和(佐賀高-東京帝大) 등, 總督府의 교학관이나 경성제대의 교수진으로 채용되는 <國史學>출신자들이 이어가게 된다. 또 今西·小田 등의 훈도를 받은 田川孝나 나중에 언급하는 森田芳夫를 비롯한 <京城帝大予科→京城帝大法文學部史學科>로의 <外地>출신자 세대의 조선사연구가 결과적으로는 전후 일본의 조선사 한일관계사 연구를 이어준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는 하나 이 시기는 田保橋潔나 奧平武彦(《朝鮮開國交渉始末》1935年)등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근대사 연구는 시작되지 않은 단계였다. 그래도 金庠基에 의한 <東學亂(甲午農民戰爭)>에 관한 선구적인 사적 고찰에 기초한 논고가 戰時期(1940年)에 나오는 등 청일전쟁기를 상한으로한 근대사 연구의 맹아를 확인할 수 있다.

京城帝國大學 법문학부 교수(國史學担当)였던 田保橋潔(1897~1945)는 朝鮮史編修會에 중간부터《朝鮮史》편수에 촉탁으로 참여하여 나중에는 실질적인 주재자 역할을 하였다. 전시기에 학문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日韓/韓日의 근대 관계사 연구의 시초는 역시 田保橋潔의 업적이고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근대의 국제정세를 생생하게 그린 명저인 《近代日鮮關係の研究》(1940年)는 사료 섭렵의 범위와 실증 방법, 논의의 틀은 지금으로 보면 고전적이나 오늘날에도 이것을 능가하는 규모의 연구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 《近代日鮮關係の研究》도 조선사편수회의 인적 물적 지원 없이는 성립할 수 없었다.⁷⁾ 또 1937년에 본편의 최종권을 간행(最終卷인<總索引>은 1940年 3月刊)하고 稻葉이 滿洲建國大學에, 中村이 總督府學務局 편집과 편수관으로 진출한 후의 조선사편수회에서 田保橋는 총독부 문서과에 보관되어 있던 일본공사관 한국통감부 시대의 공문서를 조사 촬영하고 경성제대 이관후 규장각의 구대한제국 시대의 문서를 조사하는 등 《朝鮮史》편수 과정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새로운 근대사 근대사료의 수사편찬에 대비하여 착실히 작업해 나갔다. 그 결과의 일단이 《近代朝鮮史研究》(1944年刊)나 《朝鮮統治史論稿》(1945年, 未刊)로 정리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정통 사학적인 방법을 취한 연구는 아니나 福田德三·吉野作造·矢内原忠雄⁸⁾ 등의

7) 이 책은 저자인 田保橋의 이름을 쓰지 않고 끝까지 朝鮮總督府 中樞院의 비밀출판의 형식을 취했다. 그 때문에 田保橋는 이 책을 학위청구논문으로 동경제국대학 문학부에 제출했으나 심사를 맡은 平泉澄·小倉進平 등의 불신을 사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先學を語る—田保橋先生>/東方學會編 《東方學回想V 先學を語る(4)》/東京, 刀水書房 2000年5月).

8) 矢内原忠雄 <朝鮮産米増殖計劃に就て> (《農業經濟研究》 <岩波書店> 2-1, 1926年 2月).

식민지연구 식민정책론에도 주목하고 싶다. 그들의 논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총독부의 시정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기도 했으나 경제사연구 뿐 아니라 한일관계사연구에서는 한국병합 이후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 외교분야에 대신하는 하나의 획을 긋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福田의 연구는 마르크스경제학 경제발전단계론에 의거한 한국경제론으로서는 초창기(1903년부터 《内外論叢》에 掲載⁹⁾)의 연구이고 오늘날에 한국, 조선사회를 ‘정체’해 있다고 보았던 것으로 그 평가는 좋지 않다. 단 당시의 신진기예의 연구자로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경제학도가 사적단계발전에서의 ‘봉건제’의 유무를 논하는 가운데 조선을 제재의 하나로 들었다는 데 연구사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주목하고 싶다.

또 宮城縣 출신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1878~1933)는 센다이의 第二高等學校를 나와 동경제국대학 법과에 진학하여 동 대학 교수를 거쳐 朝日新聞社에 입사한다. 福岡·柳川 출신인 海老名彈正의 영향도 있어 기독교주의에 기초한 사회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그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新人會>를 조직하여 여기서 많은 무산정당이나 노동운동의 지도자(예를 들면 麻生久·赤松克麿·宇崎龍介등)를 배출하는 등 쇼와전진기의 비공산계 좌파혁신세력을 배출하는 모태가 되기도 했다. 또 요시노 자신도 福田德三과 함께 <黎明會>를 조직하여 특히 조선인 유학생을 돌보는 지원¹⁰⁾을 함과 동시에 조선총독부의 시정을 통렬히 비판하고 그것을 다시 그의 주된 언론의 장이었던 《中央公論》 지상¹¹⁾에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3·1독립운동이 발발하자 몸소 조선으로 조사¹²⁾하러 건너가 당시의 조선총독부경무국장인 丸山鶴吉과 《新人》(海老名가 주재하는 계몽잡지)에서 지상논쟁¹³⁾을 벌인 것 등은 이른바 <武斷統治>의 종언과 <文化政治> 개시기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어쨌든 吉野를 비롯한 기독교자·자유주의자에 의한 급진적이며 <社會科學>적 방법론에 기초한 조선통치 비판은 그야말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아들이며 1945년 8월 이후의 여러 연구분야에서 방법론적인 저류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상은 소위 말하면 <官製>의 연구였고 한국병합 이전부터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일본인 집단에 의한 <史談會>적인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인물은 다양하나 여기에서는 菊池謙讓와 今村靑를 고찰하겠다.

-
- 9) 福田德三 <經濟單位發展史上韓國ノ地位> (《法律學經濟學 内外論叢》 2-1·2-5·3-6·4-1, 1903年 2月·1903年 10月·1904年 12月·1905年 2月), 이후 《經濟學研究》(東京, 同文館, 1907年 6月初版)에 수록.
 - 10) 黎明會는 《黎明講演集》을 간행하며 제6집이 <朝鮮問題號>(1919年 8月)였다. 내용은 吉野作造 (<朝鮮統治の改革に關する最小限度の要求>)·木村久一(<サーベルの同化>)·福田德三(<朝鮮は軍閥の私有物に非ず>)·阿部秀助(<繼母根性は去れ>)·麻生久(<自らの良心にかへれ>)·内ヶ崎作三郎 (<朝鮮問題の背景としての形式主義>).
 - 11) <滿韓を視察して>(1916年 6月号)/ <對外的良心の發揮>(1919年 4月号)/ <新總督及び政務總監を迎う>(1919年 9月号)/ <いはゆる呂運亨事件について>(1920年 1月号)/ <支那朝鮮基督教徒の大會不參加>(1920年 10月号)/ <朝鮮問題に關し當局に望む>(1921年 2月号)/ <朝鮮人虐殺問題に就て>(1923年 11月号) 등.
 - 12) 이 때의 시찰 내용은 <《天道教》 研究資料 <1>~<6> (《國家學會雜誌》 33卷 5·7~10號, 34卷 1號, 1919年 10月, 1920年 1月)에 채록되어 있다.
 - 13) 丸山鶴吉 <朝鮮統治策に關して吉野博士に質す> (《新人》21卷 3号, 1920年 3月)/吉野作造 <朝鮮統治策に關して丸山君に答ふ> (《新人》21卷 4号, 1920年 4月).

구한말에서 일본 통치기에 걸쳐 민간의 재한 제조일본인의 직능적 유형은 상공인 회사원 공익 단체 직원(금융조합 등) 농림 어업 종사자등이며 여기에 신문 잡지 등의 언론인과 관리 출신들도 포함된다. 기쿠치 겐조(菊池謙讓(1870~1953))는 구마모토현(熊本縣) 八代 출신이며 東京專門學校(現:早稻田大學)졸업 후 동향의 德富蘇峰가 경영하는 民友社에 입사한다. 그리고 《國民新聞》의 특과원으로서 조선반도에 건너와 청일전쟁 때는 중군기자로서 평양공방전을 취재하였다. 나중에 명성황후사건에도 가담하여 일시적으로 퇴한처분을 받게되나 1895년부터 다시 한성에서 熊本國權黨의 샷사 토모유키(佐々友之) 아다치 겐조(安達謙藏) 등과 함께 《漢城新報》¹⁴⁾ 창간에 참가하였다. 이 신문이 통감부의 매수공작으로 《京城日報》로 되면서 이를 기피한 菊池는 새로이 《大韓日報》를 발행하고 또 대구거류민단장을 역임하는 등 계속 한반도에 거주하며 결국에는 해방 후 일본으로의 ‘귀환’까지 경험하게 된다. 또 小田省吾 등과 함께 <高宗·純宗實錄>편찬에도 종사¹⁵⁾하고 있고 전시기에는 일진회, 李容九, 內田良平 등에 관한 문장을 자주 집필¹⁶⁾하고 있다.

14) 熊本國權黨 그룹이 외무성과 재한일본공사관의 지원을 받아 1895년 3월부터 한성에서 간행한 신문(1903년 도중까지는 격월간). 李海暢 《韓國新聞史研究》(서울, 成文閣, 1971년 11월)에 의하면 第101号까지는 소형신문이었으나 第102号(1895年 9月 9日付)부터 지면을 확충하여 4면 구성(1·2面:韓文, 3面:日文, 4面:廣告)으로 되었다. 또 시기는 명확치 않으나 어느 시점부터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이 교대로 격일간으로 발행되었다한다. 1903년10월부터는 일간이 되고 일한양어판이 제작 판매되었던 것 같다(1903年 9月 25日付 2面 <社告>欄).

그리고 102호부터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03년 10월 이후 분은 한국어판 뿐이다. 이하는 연대에 소장된 호수이다. 단 1299호대부터 1300호대로 바뀔 때 발생한 호수의 틀림(1300호가 1200호로 되었다)이 그 후에도 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하의 호수는 필자가 임의로 보정한 호수이다.

1895年: 102号~156号(9月 9日~12月 27日)

1896年: 157号~335号(1月 5日~12月 28日)

1897年: 336号~354号(1月 5日~2月 15日)

1902年: 1118号~1269号(7月 11日~12月 28日)

[欠]: 1232号~1256号, 1258号, 1266号

1903年: 1270号~1396号(1月 4日~12月 24日)

[欠]: 1272号, 1282号, 1290号, 1295号, 1307号, 1327号~1377号, 1381号, 1381号, 1384号

1904年: 1400号~1644号(1月 1日~ 11月 6日)

[欠]: 1416号, 1419号, 1432号~1478号, 1590号, 1597号, 1598号, 1601号

1905年: 1776号~1779号, 1840号~1846号(5月 4日~5月 7日, 9月 10日~9月 17日)

15) 高宗·純宗實錄編纂委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委員長: 篠田治策(李王職長官·法學博士)/副委員長: 李恒九(李王職次官·男爵)/監修委員: 小田省吾(京城帝大教授)·鄭萬朝(經學院大提學)·朴勝鳳(中樞院參議)·成田碩內(李王職囑託)·金明秀(元李王職事務官)·徐晚淳(元宮內府秘書院丞)/編纂委員: 徐相助(中樞院參議)·南奎熙(元中樞院參議)·李明翔(元宮內府宗正院卿)·趙經九(元宮內府奉常司提調)·洪鍾瀚(元朝鮮總督府郡守)·權純九(元朝鮮總督府郡守)/史料蒐集委員: 朴胄彬(李王職事務官)·李源昇(元李王職事務官)·李能和(元朝鮮總督府編修官)·菊池謙讓(元大陸通信社社長)/庶務委員: 末松熊彦(李王職事務官)/志賀信光(李王職事務官)/會計委員: 佐藤明道(李王職事務官)/監修補助委員: 金碩彬(元朝鮮總督府郡守)·江原善樾(元朝鮮總督府理事官)·崔寧鎮(元宮內府秘書院丞)·崔奎煥(元李王職屬)/編纂補助委員: 濱野鐘太郎(元朝鮮總督府道警視正)·李秉韶(元宮內府秘書院丞)·李豐用(元李王職屬)·水橋復比古(元朝鮮總督府郡書記)·李準聖(元農商工部主事)·金炳明(元法部主事)·洪明基(元宮內府水輪課主事)/史料蒐集補助委員: 北島耕造(元京城高商囑託).

또 今村靫(1870~1943)은 高知縣 출신이고 法政大學 專門部를 졸업한 후 일개 경찰관에서 경시청의 경부로 승진하게 된다. 그리고 岐阜縣의 海津郡長을 거쳐 1908년 7월에 충청북도의 경찰부장으로 한국으로 부임한다. 이후 1925년 3월 퇴관하기까지 경성 남부서장, 평양서장, 제주도사, 원산부윤 등을 역임하고 있다.¹⁷⁾ 만년의 그의 폭넓은 연구는 경찰관료, 지방관료 시대에 배양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조선사편수회가 설치되자 그는 촉탁으로 근무(1930년 7월~1931년 12월)하였고 또 中樞院에서도 오랫동안 촉탁으로 각종 민속사료의 수집과 자료집 간행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물론 이들은 <民情調査>의 명목으로 행해진 일종의 치안유지 범죄방지를 위한 기초조사이기도 하며 총독부의 통치를 원활히 하게 하는 데 주안이 두어져 있었다. 그러나 今村의 저술활동¹⁸⁾은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인간사회의 풍속 전반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¹⁹⁾이 원동력이었던 듯 하다.

菊池와 今村는 우연히도 같은 나이이고 경성 일본인 사회의 고참 멤버이기도 하여 자연히 역사의 '산 증인'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중일전쟁 당시 창간되어 1943년 12월까지 간행된 《書物同好會會報》에는 菊池나 今村를 비롯한 민간사가, 기업인,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의 교원등이 집필을 맡았다. 또 이 회보에는 櫻井義之에 의해 근대사 관계자료에 관한 글도 게재되어 오늘날로서도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발행체인 <書物同好會>는 원래 吉野作造가 주재한 <明

16) <韓國併登に登場した内田良平>(《國民總力》 6卷 15号, 1944年 8月)の他, <菊池謙讓(기쿠치 켄조)熊本縣出身 明治三年生 明治二十六年早稻田專門學校英語政治科卒 明治二十七年國民新報社入社 明治三十三年漢城新報社々長就任 昭和五年李王職編纂委員 昭和十三年부터 현재까지 근대 조선사(近代朝鮮史), 金玉均傳著作 目下李容九傳編纂中 現住所 京城府城東區新堂町四三二>(和田八千穂・藤原喜藏編 《朝鮮の回顧》 京城, 近澤書店, 1945年 3月, <執筆略歴>, 下線은 筆者)라는 기록도 있다.

17) 今村의 경력 업적, 인물에 대해서는 이하의 부보 기사가 잘 전하고 있다.

《今村靫翁 半島에서 민속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京城府宮井町八九今村靫(號螺炎) 翁은 투병 요양 중 기관지염이 같이 나타나 十一日 午後九時 五分 자택에서 서거하였다. 享年七十四, 고별식은 十三日 午後三時부터 宮井町의 자택에서 신도식으로 거행된다. 翁은 高知縣 高岡町의 출신, 法政大學法科卒業後 警視廳 警部를 시작으로 岐阜縣 海津郡長을 역임한 뒤 明治四十一年 渡鮮, 忠清北道, 江原道 警察部長, 南部(現本町)署長, 平壤署長을 역임. 初代濟州島司, 元山府尹을 거쳐 李王職 勅任庶務課長이 되어 大正十四年 퇴임 이후에는 오로지 인삼 연구에 몰두하여 그의 《人參史》 七卷은 학계의 귀중한 문헌사료로 존중받고 있고, 또 고고민속, 토속에도 조예가 깊어 《朝鮮風俗集》 《朝鮮の姓氏名に關する研究調査》 《高麗以前風俗資料撮要》 등의 다수의 저서가 있고 조선 토속연구의 제1인자로 큰 공헌을 한 바 있다. 川柳, 俳句 등에도 취미가 있어 현재 朝鮮川柳協會々長으로도 활약하고 있었다>(《京城日報》 1943年 1月 13日付朝刊 3面)

18) 《朝鮮風俗集》(京城, 斯道館, 1914年 11月/訂正3版: 京城, ウツボヤ書店, 1919年 12月) · 《朝鮮漫談》(京城, 南山吟社, 1928년 8월) · 《船の朝鮮》(京城, 螺炎書屋, 1930年 11월) · 《朝鮮の姓名氏族に關する研究調査》(朝鮮總督府中樞院, 1934年 11월) · 《朝鮮風俗資料集說 扇 左繩 打毬 匏》(朝鮮總督府中樞院, 1937年 3월) · 《人參史》1~7卷(朝鮮總督府專賣局, 1934年 8월~1940年 3월) · 《李朝實錄風俗關係資料撮要》(朝鮮總督府中樞院, 1939年 8월) · 《朝鮮の國名に因める名詞考》(朝鮮總督府中樞院, 1940年 6월) · 《高麗以前の風俗關係資料撮要》(朝鮮總督府中樞院, 1941年 3월) ·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朝鮮總督府中樞院, 1944年 5월) 등이 있다.

19) 《朝鮮民俗》 第3号(1940年 10월)에는 <今村靫翁著作目錄>이 수록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보듯이 大正 말기에서 昭和 초기에 간행되고 있던 회원제의 풍속전문잡지 《變態資料》에 경찰관 시대에 가끔 집필하고 있었음을 보아도 今村의 취향을 알 수 있다.

治文化研究會>(1924年發足, 機關誌 《新舊時代》→《明治文化研究》→《明治文化》)²⁰⁾의 계보로,²¹⁾ 明治文化研究會가 갖고 있던 반관학적인 분위기를 농후하게 지닌 집단이었다.

평가는 차치하고 관측, 특히 조선사편수회에 의한 수사사업의 범위가 청일전쟁 개전시기까지로 한정된 이상 그 이후의 역사를 당사자의 눈으로 기록 기술한 것에 대한 역사적인 위상은 결코 근대사연구의 주류로는 볼 수 없으나 역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 후 일본으로 귀국한 書物同好會 멤버들은 도쿄에서 다시 회합을 재개하여 나중에 이것이 <朝鮮學會>로 합류하게 되었음을 덧붙여 두는 바이다.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연구사적 작업으로서 內田良平을 비롯한 黑龍會 멤버에 의한 <亞細亞主義>·<日韓合邦>顯彰운동을 들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朝鮮通>의 계보에 속하면서 《日韓合邦秘史》(1930年), 그리고 東亞同文會에 의한 《對支回顧錄》과 비견되는 정보량을 과시하는 黑龍會編 《東亞先覺志士記傳》(1936年)은 우선 자기 과시물로서 역사연구를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치안당국인 조선총독부가 꺼리는 것을 다룬 금기를 깨는 내용이나 일본정부의 대아시아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많고 다루고 있는 시기도 당시로서는 최근세인 이상 엄밀한 사료비판이 선행된다면 특정 정치집단에서 바라본 한일관계의 서술로서 연구사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윤색과 미화는 어떤 의미에선 어쩔 수 없으나 《日韓合邦秘史》의 내용은 원사료의 개간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²²⁾ 이상 우선은 검토하기에 충분한 대상이다.

단 이러한 국가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우파 내셔널리즘운동은 전후역사학에서는 거의 무시되어 온 재재였다. 근년에 들어 지방사연구의 착실한 진보²³⁾와 함께 자유민권운동 국권운동 초기사회주의운동이 각각 고립적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아시아주의> 형성과 관련하여 종래의 제국주의 연구, 파시즘론과의 안이한 연결은 바야흐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 앞으로의 과제는 그러한 혼합된 형태의 각 사상적 행동을 사적으로 치밀하게 추적하여 그 사상의 비틀어짐과 영감을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 때 아시아주의의 기점인 '조선문제'를 둘러싼 근대 일본인의 대응을 음미하는 것도 한일관계사의 큰 과제이며 이미 기본적인 틀 자체는 전전에도 꽤 많은 부분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단 근대한일관계연구 뿐 아니라 전전기의 조선사연구는 대개 일본인 연구자에 독점되어 있었

20) <[座談會] 維新史研究の歩み [第二回] -明治文化研究會をめぐって->(《日本歴史》 247, 1968年 12月) 참조.

21) 이 경위에 관해서는 櫻井義之 <書物同好會顯末記> 및 동 <朝鮮對外關係史研究への序説>(모두 《靑丘餘錄》 <1980年 6月>에 所收) 참조.

22) 櫻井良樹 <【解題】 內田良平と內田良平文書>(《內田良平文書》 第1卷, 東京, 芙蓉書房出版, 1994年 6月 所收)

23) 일찍이는 西尾陽太郎 <九州における近代の思想狀況>(福岡ユネスコ協會編 《日本近代化と九州》 <九州文化論集 4> 東京, 平凡社, 1972年 7月)이 있고 또 石瀧豐美 《玄洋社發掘 もうひとつの自由民權》(福岡, 西日本新聞社, 1981年 5月/ 1997年 8월에 増補版)이 그러한 업적 가운데 대표적이다. 그리고 근년에는 지방자치체사 편찬의 일환으로 《福岡縣史近代資料編・自由民權運動》 <執筆編集: 有馬學・江島香・石瀧豐美>(福岡, 西日本文化協會, 1995年 7月)이 완성되어 玄洋社 성립기의 후쿠오카의 자유민권운동에 관해 망라한 사료집이 나왔다.

다. 1910년 8월의 한국병합에 의해 먼저 국가 대 국가 관계라는 틀이 무너졌고 나아가 대중국, 대미영 전시하에 이른바 '내선일체'화가 소리 높여 선전되면서 조선사 연구도 일본의 '국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조선인 연구자의 본격적인 등장은 역시 해방 후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나중에 북한의 사학계를 이끌게 되는 白南雲이나 李清源의 저작²⁴⁾이 1930년대에 연이어 간행되고 또 일본 통치 말기부터 미군정기에 걸쳐 경성제대 사학과(選科) 출신의 金聖七 등 초창기 경성대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은 세대가 등장한다. 특히 백남운에 의한 <朝鮮封建社會論>은 전후의 <資本主義萌芽論>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반면 이청원에 의한 <朝鮮社會停滯論>에 의거한 비판이 가해지는 등 실로 전후 일본에서 논쟁이 된 <內在的發展>에서의 자본주의적 사회발전의 유무에 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후의 역사연구의 축적 사료간행과 연구자 양성이 본격화되면서, 즉 한국의 '국사학'의 탄생으로 드디어 한일 쌍방의 연구가 함께갈 수 있는 태세가 구현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용어법으로 日韓/韓日 <關係史>의 카테고리는 학술적으로는 1910년 8월로 일단 절단되어 1945년 8월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I. 전후의 근현대한일관계사 연구의 경향

이 절에서는 앞 절의 내용에 이어 전후기의 연구사에 대해 언급하기로 하겠다. 그러나 단순히 근현대 한일관계사라 해도 그 범위는 너무 넓어질 관계 상 다 언급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좁은 의미의 즉 테마를 극히 한정된 위에서 근현대한일관계사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에 대해 연구사적 위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일본인에 의한 특정의 역사적 사건, 주제 설정의 추이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로써 반대로 앞절에서 상술한 전전기의 연구와 전후기의 그것이 어떻게 연속·비연속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하나의 지표틀을 제공해 준다. 또 그 소재는 <東學黨의 亂/甲午農民戰爭> 및 <日清戰爭>이다. 이들은 이미 앞절에서 든 田保橋를 비롯한 연구자들, 혹은 <朝鮮通>들의 집필동기 내지는 업적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중복되는 것도 들어 있다. 여기서는 우선 시간적으로 전전기의 사항에 관한 문장, 저서 등을 들어 두겠다.

아래의 일람으로부터 일본인 <朝鮮通>들에게 東學(黨)은 처음엔 메이지 중기에 크게 유행했던 <經國美談>(矢野龍溪)이나 <佳人之奇遇>(東海散士 <柴四朗>)를 비롯한 <政治小説>의 모티브가 될 만한 <政治理想의 實踐>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젊은 날의 內田良平나 武田範之도 또 <天佑俠>를 칭하는 낭인 그룹의 일원이 되어 동학농민군과의 연대를 모색하였다. 이 경험을 발판으로 조선문제 나아가 중국 만몽문제에 정통한 民間壯士로서 주목받게 되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24) 이청원의 활동 및 저작에 관해서 廣瀬貞三 <李清源의政治活動と朝鮮史研究>(《新瀉國際情報大學情報文化學部紀要 <人文科學編>》 7, 2004年 3月)를 참조.

<p>服部徹 <小説 東學黨>(1894年3月) 清藤幸七郎編(吉倉江聖) <天佑俠>(東京, 新進社, 1903年10月) 鮎貝房之進 <東學黨につきて>(《韓國研究會談話集》4, 1905年7月) 鮎貝房之進 <東學黨及裸負商>(《朝鮮》<朝鮮雜誌社版>25, 1910年3月)</p>
<p>渡瀬常吉 <朝鮮騷擾事件の真相と其の善後策>(《新人》20卷4号<通225号>, 1919年4月) 吉野作造 <《天道教》研究資料>(1)~(6)(《國家學會雜誌》33卷5・7~10号・34卷 1号, 1919年5・7~10月・1920年1月) 山本忠美 <天道教とは何ぞや>(其一)・(其二)(《新人》20卷8・9号<通229・230号>, 1919年8・9月) 渡邊彰 <天道教と侍天教>(京城, 大阪屋号書店, 1919年11月) 青柳綱太郎 <朝鮮獨立騷擾史論>(京城, 朝鮮研究會, 1921年3月) 細井肇 <侍天教と天道教>(《鮮滿の經營 朝鮮問題の根本解決》東京, 自由討究社, 1921年12月, <參考資料>55~130頁) 有馬祐政 <朝鮮の二賢哲 一李退溪と崔濟愚一>(《東亞之光》<東洋協會>17卷1号, 1922年1月) 細井肇 <侍天教の教旨 東經正義 鳳凰琴>(《滿鮮叢書3》(東京, 自由討究社, 1922年11月) 幣原坦 <朝鮮の天道・侍天教>(《世界聖典外纂》東京, 世界文庫刊行會, 1923年5月, 45~55頁) 幣原坦 <天道教・侍天教>(《朝鮮史話》東京, 富山房, 1924年12月, 513~531頁) 葛生能久 <日韓合邦秘史>(上)(東京, 黑龍會出版部, 1930年) 草深常治 <天道教瞥見>(《朝鮮》192<朝鮮總督府>, 1931年5月)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京城, 朝鮮總督府, 1935年)</p>
<p>長風山人(菊池謙讓) <東學黨史話>(《金融組合》127, 1939年4月) 李碩奎 <父 李容九を語る>(上)・(中)(《綠旗》4卷10・11号, 1939年10・11月) 櫻井義之 <小説 《東學黨》とその著者>(《書物同好會報》6, 1939年12月)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下,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年3月) 石井壽夫 <教祖崔濟愚における東學思想の歴史的展開>(《歴史學研究》12卷6号, 1941年6月)</p>
<p>井上右 <武田範之傳 興亞風雲譚>(東京, 平凡社, 1942年9月) 平野義太郎 <大アジア主義の歴史的基礎>(東京, 平凡社, 1945年6月)</p>

이것이 한국병합기를 전후하여 1919년 3월의 3·1운동 후에는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한 天道教·侍天教 등 <類似宗教>에 대한 감시적인 연구 조사로 이어졌고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新附의 民>에 대한 자선 내지 권리 옹호 같은 데모크라틱한 언론의 소재로 바뀌어 간다. 더욱이 중일, 미일전쟁기가 되면 이번엔 <內鮮一體>정책을 수행하는 데 일정한 이용 가치를 인정받아 <顯彰>의 대상으로도 되어 간다. 혹은 이미 <歷史學>의 대상으로조차 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菊池謙讓의 집필활동과 연관된 현상이며 당초 《日韓合邦秘史》조차 조선에서는 발매금지였으나 1940년 전후시기부터 일진회를 포함한 동학에 관한 일본인측에 의한 글들이 해금²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시하의 일본에서 이전에는 금기에 가까웠던 아시아문제가 중일전쟁 하의 동아협동체론, 동아신질서가 선전되고 나아가 ‘아시아의 해방, 부흥’ ‘대동아공영권건설’의 국시에 맞다고 재인식 내지 환골탈태되어 갑자기 그러한 역사인식에 기초한 저작들이 늘어난 것²⁶⁾과도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서 일정한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 그것

25) 예를 들면 《京城日報》 지상에서는 1939년 3월 4일자 조간에서 <一進會とは> 및 同 3월 8일付 조간에 <讀へん《內鮮一體の功勞者》 李容九翁>, 同 11월 10일자 석간에 <李容九追慕-內鮮一體の先驅者>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이후에도 일진회, 대동일진회 관련 기사가 자주 보이게 된다.

26) 이른바 사상전향자나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이 시기 연이어 일본의 국가주의운동을 정리하려는 글을 많이 발표하였다. 특히 그 원류로 明治時代の 조선문제(西郷隆盛・<征韓論>問題・土族反亂・自由民權運動 등)를 모두 열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木下判治 《日本國家主義運動史》(東京, 慶應書房, 1939년 10월)・津久井龍雄 《日本國家主義運動史論》(東京, 中央公論社, 1942년 5월) 同 《大

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지는 ‘아시아주의’이해의 틀을 제시하던 차에 패전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전후의 東學(〈東學黨의亂〉·〈甲午農民戰爭〉)에 관한²⁷⁾ 연구(일본어로 쓰여진 제일 한국·조선인/한국인 유학생의 연구도 여기에 포함됨)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이들은 청일전쟁에 이르는 정치과정에서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를 정치 외교 군사사적으로 이해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아시아침략의 서곡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많아지게 되었다. 한편으로 특히 일본근대사연구자들로부터는 메이지 정치사나 국제관계사에서 치밀하게 실증하려는 작업의 방향을 강조된 연구도 많아져 그런 의미에서는 전전의 연구 위에 정통적인 실증 연구의 진전을 보게 되었다.

또 청일전쟁 발발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된 동학에 대해 이를 〈農民戰爭〉이라는 엥겔스류의 투쟁사관을 지양하고 민중사, 종교사회사적 측면에서 새롭게 지역의 전통사회에 뿌리를 둔 동학론을 구축하려는 실증연구²⁸⁾가 등장하고 있으며 연구사적인 계보로 보면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전의 村山智順·小田内通敏 등이나 崔南善·孫晋泰에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러일전쟁에 관한 연구 그 자체는 한일관계사연구와는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保護國化〉에서 〈韓國併呑〉에 관한 연구²⁹⁾까지가 우선 좁은 의미로 한일관계사 연구상 하나의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관한 연구는 한국·조선근대사연구와 일본근대사연구에서 논점이나 사료의 괴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용 언어의 문제도 있으나 세대가 바뀌면서 논점의 세분화가 진전된 결과 쌍방이 서로의 연구수준을 엄밀하게 파악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는 듯하다.

Ⅲ. 총괄

전후의 일본에서 근대의 한일관계사 내지 근대한국/조선사가 다시 역사학 연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제재로 된 것은 역시 그 당시 가장 현실적 혹은 정치적인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 많았다.

西郷》(東京, 昭和刊行會, 1943年 9月)·林房雄 《勤皇の心》(東京, 創元社, 1943年 4月) 등이 대표적인 저작이다.

27)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中塚明 《日清戰爭の研究》(東京, 青木書店, 1968年 3月)/藤村道生 《日清戰爭-東アジア近代史の轉換点-》〈岩波新書〉(東京, 岩波書店, 1973年 12月)/朴宗根 《日清戰爭と朝鮮》(東京, 青木書店, 1982年 12月)/崔頌堯 《日清戰爭への道程》(東京, 吉川弘文館, 1997年 2月)/高橋秀直 《日清戰爭への道》(東京, 東京創元社, 1995年 6月)/井口和起 《日本帝國主義の形成と東アジア》(東京, 名著刊行會, 2000年 4月).

28) 대표적인 연구로서 김의환 《近代朝鮮東學農民運動史の研究-1860年~1893年を中心に-》(大阪, 和泉書院, 1986年 9月)과 趙景達 《異端の民衆反亂-東學と甲午農民戰爭》(東京, 岩波書店, 1998年 12月)을 들 수 있다.

29) 이들에 관한 연구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여기에서는 연구 동향 파악에 유용한 森山茂德 《近代日韓關係史研究》(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7年 6月)와 海野福壽 《韓國併合史の研究》(東京, 岩波書店, 2000年 10月)를 들어 둔다.

특히 1945년 이후부터 朝鮮戰爭期에 걸쳐 ‘아시아연대’가 모색되는 가운데의 혼돈된 상황에서 1960년에 이르는 ‘明治百年’과 같은 근대일본의 하나의 큰 전기를 맞은 가운데 <明治維新> <自由民權運動>의 재검토, 또 이것의 발전형으로서 日淸戰爭·日露戰爭·韓國併呑에 이르는 메이지 정국에서의 이른바 <朝鮮問題>에 관한 연구 테마가 많이 설정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박정희 정권 하에 타격을 본 한일교섭과 체결된 <日韓基本條約>에 의해 한일의 국교정상화를 진후하여 <內在的發展>과 그와 대조적인 <停滯史觀/他律性論의 克服>이 주로 사회경제사 연구의 분야에서 크게 대두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내재적 발전’사관/‘정체’사관 모두 선형적으로 발전단계설적인 자본주의팽아론 내지는 서구적인 ‘근대’를 지상 전제로 하는 논의이며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쳐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많이 제기되게 되었다. 특히 ‘일국주의’적인 방법론적 자기당착에 빠진 일본학계는 논의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³⁰⁾ 그러나 한편으로 주로 국내의 정치 경제 상황으로 한국에서는 그다지 활발한 논의를 일으키지는 못하고 북한에서도 김일성체제의 경직화, 개인 숭배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역사학계는 급속하게 혼미를 거듭할 뿐이었다.

나아가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근대사연구로서는 전 시대에 비해 매우 향상된 사료 상황에 힘입어 연구 테마의 세분화와 개별 실증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게 된다. 특히 1920·30년대에 관한 사실의 발굴이 진전하는 가운데 특히 사회주의 노동운동 재일조선인에 관한 연구가 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또 반드시 실증적이라고는 하기 어려우나 이른바 ‘현대사’ 즉 한국 및 북한의 정치 경제에 관한 현상분석적인 논고도 급증하였다.

한일관계사연구와 직결되는 것으로는 역시 ‘개화과, 개화기’에 관한 연구가 특징적이고 그 단서로는 우선 1960년대의 <金玉均> 등 초기개화과, 독립당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있었다. 이 시점에서 <甲申政變>이 과연 <부르주아혁명>이었는가 아닌가의 문제와 같은 위의 ‘內在的發展論’과도 통하는 논의가 활발하였고 이것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걸친 근대의 ‘수용’에 관한 제 문제(예를 들면 만국공법의 수용과 개화과 관료 계몽지식인)에 관한 연구³¹⁾로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 나아가 ‘근대’를 상대화라는 시점이 구한말의 ‘애국계몽운동’연구에도 파급되는 등 ‘내재적발전론’ 이후 저조했던 근대사 연구 상의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에 새로운 경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한 일 양쪽에서 근대사의 문맥 위에 새로운 연구시각과 과제를 갖추고 양쪽나라에 유학한 경험을 가지는 연구자층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는 한국의 고도경제성장, 서울올림픽의 주최를 거쳐 군인 출신 대통령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뒤를 이어 문민 대통령이 재등장한 시기였다. 그러한 공전의 경제적 활황에서 경제위기까지를 거치는 정세를 반영해서인지 한국에서는 갑자기 ‘식민지 근대화’에 관한 논의가 크게 비등하게 된다. 이것의 전제는 역시 70년대 말까지 한일 쌍방의 경제사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어 온 일본통치 하의 식민지 경제에 관한 실증 연구의 하나의 귀결³²⁾이었

30) 吉野誠 <朝鮮史研究における內在的發展論>(《東海大學紀要 文學部》 47, 1987年 9月)참조.

31) 原田環 <朝鮮の開國と近代化>(廣島, 溪水社, 1997年 2月)가 대표적인 연구이다. 또 최근 중국근대사의 입장에서 田保橋의 연구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岡本隆司 <屬國と自主のあいだ-近代淸韓關係とアジアの命運->(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4年 10月)가 출간되어 주목된다.

32)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紀要別冊>(東京, 汲古書院, 1991年 2月) 및 宮嶋博史·松本武祝·李榮薰·張矢遠 <近代朝鮮水利組合の研究>(東京, 日本評論社,

다. 특히 ‘토지조사사업’을 단순한 토지 수탈의 권력적 폭력장치로서가 아니라 재래의 조선사회의 토지소유형태의 근대적 재편으로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제시는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연구와는 맞지 않았으나 한편으로는 경제사 분야에서는 매우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덧붙여 90년대부터 현재까지 근대 일본의 이른바 ‘帝國編成’에 관한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일본 제국주의 연구’와는 명확히 선을 긋고 또 종래의 매크로 경제적인 식민지연구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영역, 즉 언어, 학력, 관료제, 국적, 위생, 노동, 젠더 등등 범영역과 문화 사상 신체에 이르는 근대의 ‘지의 역정’이라 부를만한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연구 테마가 설정되었다. 식민지 근대화의 논의도 느리긴 하나 ‘포스트모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과 같은 상대화의 방향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전의 이른바 ‘강제연행’연구나 ‘재일조선인사’ 연구가 전시동원, 총동원체제의 연구로, 혹은 ‘종군위안부’연구가 근대공창제에 관한 연구로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은 그야말로 현재적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³⁾

더 부연하자면 근년의 개항기에 관한 새로운 연구동향을 들자면 ‘宗家文書’까지도 이용한 <왜관 對馬藩>을 축으로 한 외교 루트에 관한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괄목할 만한 사례의 하나³⁴⁾이다. 이미 언급한 田保橋의 연구를 보완 발전시킬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宗家文書を 이용한 연구는 주로 일본측 근세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서 宗家文書가 소장되어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가 궤도에 오르고 있고 나아가 부산 경상도의 대일무역연구가 지방사 향촌사회사 연구의 진전과 더불어 서서히 근대의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앞으로의 연구방향도 그러한 한반도의 개항, 개화기,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의 내정과 외교를 종합적으로 재구축한 양국관계사라고 사료된다. 이렇게 해야만 청일 러일 양 전쟁을 거쳐 한국병합, 총독정치 그리고 <해방> 후의 역사적 동향을 치밀하게 추적하는 작업이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일관계연구는 전후, 특히 한일국교정상화 교섭기까지가 서서히 사학적 방법, 즉 사료에 기초한 실증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직도 외교문서(특히 일본측)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등 사료면의 부족감에 대한 아쉬움은 남으나 단순한 외교교섭사에 그치지 않는 종합적이며 복합적인 한일관계사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경성제대 사학과 졸업생으로 전후에 법무사무관, 외교사무관으로 한일 외교교섭의 실무자로서 마후에서 활동한 森田芳夫(1910~1992)의 업적 등은 매우 상징적이다. 즉 <<朝鮮終戰の記録>>(1964年)에서는 日本人世話會·引揚援護局에

1992年 12月), 堀和生 <<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東京, 有斐閣, 1995年 7月) 등이 대표적이다.

33) 松本武祝 <<朝鮮における<植民地的近代>”に關する近年の研究動向-論点の整理と再構成の試み->>(《アジア經濟》 43-9, 2002年 9月 이후의 宮嶋博史·李成市·尹海東·林志弦編 <<植民地近代の視座>> <東京, 岩波書店, 2004年 10月>에 再録)을 참조하기 바람.

34) 石川寛氏의 일련의 논고(<明治維新期における對馬藩の動向-日朝外交一元化と朝鮮·對馬關係->/《<歴史學研究>> 709, 1998年 4月·<近代日朝關係と外交儀禮-天皇と朝鮮國王の交際の檢討から->/《<史學雜誌>> 108-1, 1999年 1月·<明治維新期の對馬藩政と日朝關係>/《<朝鮮學報>> 183, 2002年 4月·<日朝關係の近代的改編と對馬藩>/《<日本史研究>> 480, 2002年 8月·<倭館接收後の日朝交渉と對馬>/《<九州史學>> 139, 2004年 6月를 참조 바람.

서 실무 경험을 갖게 되었고 미국·소련의 조선 진주, 일본인의 귀환을 실사료와 증언 수집에 의해 남김없이 그려내었고 또 재일한국 조선인의 역사적인 동태를 통계자료를 구사하여 파악하는 등 전후에 걸맞는 한일관계사연구의 선구적 공적은 불후의 작업이라는 학술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만년에 편집했던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未刊行)은 앞으로는 ‘일본-북한교섭’사를 편찬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

또 재일한국·조선인 연구자들의 존재도 전후의 특징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들의 라이프 히스토리 자체가 전시기와 연관이 깊고 최근에는 유학생 출신의 이른바 뉴 커머 세대의 연구자들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開港期~韓國併合~日本統治期~解放後~現代를 통괄할 수 있는 한일관계사상을 구축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관학 재야를 막론하고 근대의 ‘사학사’적 시각에서 그것을 담당할 대표적 인물상과 업적의 파악에 비중을 둔 한일관계사연구를 총괄하고 나아가 전전과 전후의 연속/불연속을 검증해 가는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參考資料】

戦前期における日韓関係史関連主要著作年表

1892(明治25・高宗29)年	12月：林泰輔『朝鮮史』(全5冊、東京、吉川半七)
1896(明治29・建陽元)年	10月：菊池謙讓『朝鮮王國』(東京、民友社)
1901(明治34・光武5)年	6月：林泰輔『朝鮮近世史』(東京、吉川半七)
1902(明治35・光武6)年	9月：『韓國研究會談話錄』第1号(大江卓發行、以降、第4号まで刊行か)
1905(明治38・光武9)年	12月：幣原坦『日露間之韓國』(東京、博文館)
1907(明治40・光武10)年	6月：幣原坦『韓國政争誌』(東京、三省堂書店)
1908(明治41・光武11)年	11月：『高麗史』第一(東京、國書刊行會、第二：1909年7月、第三：1909年10月) * 重野安禪の序文
1909(明治42・隆熙3)年	5月：前間恭作『韓語通』(東京、丸善株式會社) * 朝鮮古書刊行會より「朝鮮群書体系」刊行開始(『大東野乘』：1909年12月より發行、1916年まで順次刊行、全83冊)
1910(明治43・隆熙4)年	3月：『顧問警察小史』(漢城、内部警察局) 5月：細井肇『現代 漢城の風雲と人士』(漢城、日韓書房) 6月：青柳南冥『日韓史蹟』(京城、町田文林堂) 11月：喜田貞吉『韓國之併合と國史』(東京、三省堂書店)／『歴史地理 臨時増刊 朝鮮號』(三省堂・日本歴史地理學會)
1911(明治44)年	* 「朝鮮研究會古書珍書」刊行(1911~1918年、全56冊) 4月：青柳南冥『朝鮮宗教史』(京城、朝鮮研究會) 8月：細井肇『朝鮮文化史論』(京城、朝鮮研究會)
1912(明治45・大正1)年	* 朝鮮光文會より「朝鮮光文會叢書」刊行(崔南善編、1912年6月に「道里表」：1912年6月より刊行開始、1915年まで順次刊行、全18編) 8月：林泰輔『朝鮮通史』(東京、富山房)／戸叶薰雄・橋崎觀一『朝鮮最近史』(東京、蓬山堂) 9月：青柳南冥『李朝五百年史』(京城、朝鮮研究會)
1913(大正2)年	11月：『朝鮮歴史地理』1・2(東京、南滿洲鐵道株式會社) 12月：『京城學海』第1卷第1号(京城、京城學海社)／幣原坦『日韓關係よりの對州研究』(廣島、廣島高等師範學校地理歴史學會)
1914(大正3)年	1月：朝鮮總督府『朝鮮統治三年間成績』
1915(大正4)年	3月：『朝鮮圖書解題』(朝鮮總督府、のち1919年3月に訂正増補版を刊行) 9月：青柳南冥『朝鮮外冠史』(京城、朝鮮研究會) 10月：朝鮮總督府『朝鮮施政の方針及實績』 12月：『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東京帝國大學文科大學・東京帝國大學文學部>第1号(第16号：1941年10月まで刊行)

1916(大正5)年	
1917(大正6)年	7月：青柳南冥『朝鮮四千年史』(京城、朝鮮研究會)
1918(大正7)年	3月：朝鮮總督府『朝鮮ノ保護及併合』 9月：青柳南冥『總督政治』(京城、朝鮮研究會)
1919(大正8)年	3月：『朝鮮金石總覽』(朝鮮總督府)
1920(大正9)年	2月：『朝鮮ノ土地制度及地稅制度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和田一郎 3月：『朝鮮語辭典』(朝鮮總督府、12月から市販) 11月：小倉進平『朝鮮語學史』(京城、大阪屋號書店)
1921(大正10)年	※『通俗朝鮮文庫』(京城、自由討究社、1921年3月~1922年5月、全12冊)
1922(大正11)年	※『鮮滿叢書』(京城、自由討究社、1922年7月~1923年8月、全11冊) 11月：淺見倫太郎『朝鮮法政史稿』(東京、嚴南堂書店)
1923(大正12)年	7月：青柳南冥『李朝史大全』(京城、朝鮮研究會) 9月：『朝鮮史講座』第1号(京城、朝鮮史學會、以下、第15号：1924年11月にて完結)
1924(大正13)年	3月：小田省吾・魚允迪『朝鮮文廟及陞庶儒賢 附朝鮮儒學年表朝鮮儒學淵源譜』(京城、朝鮮史學會)/小倉進平『南部朝鮮の方言』(京城、朝鮮史學會) 12月：幣原坦『朝鮮史話』(東京、富山房)
1925(大正14)年	9月：稻葉君山『朝鮮文化史研究』(東京、雄山閣)
1926(大正15)年	1月：『朝鮮史學』第1号(京城、朝鮮史學同友會、以降、第7号：1926年7月までで終刊か) 3月：釋尾東邦『朝鮮併合史』(京城、朝鮮及滿洲社)/松田甲『日鮮史話』第一編(朝鮮總督府、以降、第六編：1930年3月まで刊行) 7月：青柳南冥『朝鮮史話と史蹟』(京城、朝鮮研究會)
1927(昭和2)年	8月：小田省吾・瀨野馬熊・杉本正介・大原利武『朝鮮史大系』(全5巻、京城、朝鮮史學會)
1928(昭和3)年	2月：朝鮮史學會編『三國史記』(京城、朝鮮史學會) 3月：青柳南冥『總督政治史論』(京城、京城新聞社) 9月：朝鮮史學會編『三國遺事』(京城、朝鮮史學會)
1929(昭和4)年	3月：『朝鮮叢話』(朝鮮總督府)* 松田甲著 4月：金澤庄三郎『日鮮同祖論』(東京、刀江書院、のち汎東洋社より1943年5月に再刊) 8月：細井肇『朝鮮宮廷秘話 大院父王國太公の毗』(東京、昭文社) 9月：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編『朝鮮支那文化の研究』(東京、刀江書院)/大原利武『朝鮮史要』(京城、朝鮮史學會) 10月：高橋亨『李朝佛教』(東京、寶文館) ※京城帝國大學より「李朝實錄」(太白山本)の影印版作成刊行開始

1930(昭和5)年	<p>1月：朝鮮史學會編『新增東國輿地勝覽』第1~第4(京城、朝鮮史學會) 4月：田保橋潔『近代日支鮮關係の研究 天津條約より日支開戦に至る』〔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研究調査冊子第3輯〕(京城、京城帝國大學) ※1930(昭和5)年4月：李王職、『高宗太皇帝實錄』および『純宗皇帝實錄』の編纂を開始、1935年3月に刊行 8月：『月刊 朝鮮學報』第1巻第1号(京城、朝鮮學報社、第1巻第2号：1930年9月で終刊か) 8月：『靑丘學叢』第1号(以降、第30号：1939年10月にて終刊) 9月：高權三『近代朝鮮政治史』(東京、鋼鐵書院) 11月：『日韓合邦秘史』上巻(東京、黒龍會出版會、下巻は同年12月刊) 12月：『木浦府史』(木浦府)</p>
1931(昭和6)年	<p>3月：『小田幹治郎遺稿』(神戸、小田梢)／細井肇『女王閔妃』(東京、月旦社)／松田甲『續日鮮史話』第一編(朝鮮總督府、以降、第三編：1931年7月まで刊行) 5月：鮎貝房之進『雜攷』第1輯(京城、朝鮮印刷、以降、第9輯：1938年5月まで刊行) 7月：『京城帝大史學會報』第1号(第9号：1936年11月刊より『京城帝大史學會誌』に改題、以降、第18号：1942年3月まで續刊) 10月：小田省吾『朝鮮小史』(東京、魯庵記念財團) 11月：『瀨野馬熊遺稿』(東京、瀨野いと)</p>
1932(昭和7)年	<p>3月：朝鮮史編修會『朝鮮史』(第1編：第1巻「朝鮮史料」・第2巻「日本史料」・第3巻「支那史料」、および第2編から順次刊行開始、以降、第6編第4巻：1938年3月にて完結、全37冊) 9月：關野貞『朝鮮美術史』(京城、朝鮮史學會) 12月：朝鮮史編修會『朝鮮史料叢刊』(第1：『高麗史節要』から刊行開始、以降、第20：『正徳朝鮮信使登城行列圖』<1938年3月>にて完結)</p>
1933(昭和8)年	<p>1月：『朝鮮民俗』第1号(以降、第3号：1940年10月まで刊行か)／高權三『近世朝鮮興亡史』(東京、考古書院) 2月：『尹文學士遺藁』 3月：『朝鮮總覽』(朝鮮總督府) 7月：高權三『朝鮮政治史綱』(東京、永田書店) 9月：白南雲『朝鮮社會經濟史』(東京、改造社) 10月：『仁川府史』(仁川府)</p>
1934(昭和9)年	<p>2月：朝鮮總督府編『慶州郡』(朝鮮總督府) 3月：『京城府史』第1巻(京城府、以降、第2巻：1936年3月、第3巻：1941年3月) 9月：小田省吾『辛未洪景來亂の研究』(京城、小田先生頌壽記念會) 10月：朝鮮總督府中樞院編『經國大典』(朝鮮總督府中樞院)／信夫清三郎『日清戰爭 その政治的・外交的觀察』(東京、福田書房) 11月：小田先生頌壽記念會編『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京城、大阪屋號書店) 11月：『震檀學報』第1号(以降、第14号：1941年6月にて停刊)</p>
1935(昭和10)年	<p>1月：今西龍『朝鮮史の栞』(京城、近澤書店) 3月：奥平武彦『朝鮮開國交渉始末』<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纂(1)>(刀江書院)／朝鮮史編修會『朝鮮史料集眞』(上より順次刊行、下：1936年3月、續：1937年3月にて完結)／朝鮮總督府中樞院編『續大典』(朝鮮總督府中樞院)※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より「奎章閣叢書」刊行開始(第1：『瀋陽?啓』、以降、第9：『老乞大諺解』<1944年3月刊>まで刊行) 7月：朝鮮總督府中樞院編『大典續録及註解』(朝鮮總督府中樞院) 10月：『施政二十五年史』(朝鮮總督府) 11月：青柳南冥『赤裸々に見た内鮮史論』(京城、東亞同民協會)</p>

1936(昭和11)年	<p>3月：小田省吾『朝鮮陶磁史文獻考 附釜山和館考』(東京、學藝書院) ／『朝鮮史のしるべ』(朝鮮總督府)／池内宏『朝鮮の文化』(東京、岩波書店 ＜岩波講座・東洋思潮＞)／朝鮮總督府中樞院調查課編『校訂大明律直解』 (朝鮮總督府中樞院)</p> <p>4月：李清源『朝鮮社會史讀本』(東京、白揚社)</p> <p>10月：『東亞先覺志士記傳』上卷(東京、黑龍會出版部、下卷は11月刊)／李清 源『朝鮮讀本』(東京、學藝社)</p> <p>11月：池内宏『文線慶長の役』(東京、東洋文庫)／『京城帝國大學創立十周年 記念論文集(史學篇)』＜京城帝國大學文學會論纂第5輯>(東京、大阪屋号 書店)</p> <p>12月：菊池謙讓『近代朝鮮裏面史』(京城、朝鮮研究會本部・東亞拓殖公論社)</p>
1937(昭和12)年	<p>3月：朝鮮總督府編(末松保和著)『新增東國輿地勝覽索引』(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總督府中樞院調查課編『校訂世宗實錄地理志』(朝鮮總督府中樞院)</p> <p>6月：赤松智城・秋葉隆共編『朝鮮巫俗の研究』上(京城、大阪屋號書店、下： 1938年10月)</p> <p>7月：『書物同好會冊子』第1号刊行(第1号：鮎貝房之進『支那及び朝鮮の古活 字に就て』／以降、第11号：田川孝三『對馬藩士小田幾五郎と其の著書』 ＜1940年 8月＞まで刊行)／李清源『朝鮮歴史讀本』(東京、白揚社)</p> <p>10月：京城帝國大學文學會編『朝鮮文化の研究』(京城、朝鮮公民教育會)</p> <p>11月：小田省吾『増訂 朝鮮小史』(京城、大阪屋號書店)／池内宏『滿鮮史研究 中世第二冊』(東京、座右寶刊行會)／白南雲『朝鮮封建社會經濟史』(東 京、改造社)</p> <p>12月：宮崎五十騎『概觀朝鮮史』(東京、四海書房)</p>
1938(昭和13)年	<p>3月：『史學論叢』＜京城帝國大學文學會論纂 第7輯>(東京、岩波書店)／朝鮮總 督府中樞院調查課編『校訂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誌』(朝鮮總督府 中樞院)</p> <p>6月：小田省吾述『德壽宮史』(京城、李王職)／『稻葉博士還曆記念 滿鮮史論 叢』(京城、稻葉博士還曆記念會)</p>
1939(昭和14)年	<p>7月：『書物同好會會報』第1号(19・20合併号：1943年12月で終刊)</p> <p>10月：稻葉岩吉編『平安北道史』(平安北道)</p> <p>11月：森田芳夫『國史と朝鮮』＜今日の朝鮮問題講座(6)>(京城、録旗連盟)</p>
1940(昭和15)年	<p>2月：三品彰英『朝鮮史概説』(東京、弘文堂)</p> <p>3月：田保橋潔『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下(朝鮮總督府中樞院)</p> <p>5月：小倉進平『増訂 朝鮮語學史』(東京、刀江書院)</p> <p>7月：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編『大陸文化研究』(東京、岩波書店)</p> <p>10月：中村榮孝『東亞新秩序の建設と古代大陸經營の先蹤』(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朝鮮總督府)</p>
1941(昭和16)年	<p>3月：櫻井義之編『明治年間朝鮮研究文獻誌』(京城、書物同好會)</p> <p>6月：渡邊勝美『朝鮮開國外交史研究』(京城、私家版)</p> <p>11月：『史學論叢 第二』＜京城帝國大學文學會論纂 第10輯>(東京、岩波書店)</p> <p>12月：末松保和編『朝鮮歴代實録一覽』(京城帝國大學)</p>
1942(昭和17)年	<p>10月：崔虎鎮『近代朝鮮經濟史 李朝末期に於ける商業及び金融』(東京、慶應 書房)</p>

<p>1943(昭和18)年</p>	<p>1月：『學叢』第1号(京城、京城帝國大學文學會、第3号：1944年10月まで刊行か) 3月：『大邱府史』(大邱府) 4月：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編『續大陸文化研究』(東京、岩波書店) 8月：『全州府史』(全州府) 9月：森田芳夫『御稜威に廻る朝鮮 内鮮の歴史を顧て』(京城、國民總力朝鮮連盟) 10月：崔南善『故事通』(京城、三中堂)／崔南善『新訂三國遺事』(京城、三中堂)</p>
<p>1944(昭和19)年</p>	<p>2月：林泰輔『朝鮮通史』(岡崎、進光社)* 諸橋徹次の序文 3月：『近代朝鮮史研究』<朝鮮史編修會研究彙纂第一輯>(朝鮮總督府)／今西龍遺著『高麗史研究』(京城、近澤書店) 4月：前間恭作編『古鮮冊譜』第一冊(東京、東洋文庫) 6月：小倉進平『朝鮮語方言の研究』上(東京、岩波書店、下：1944年9月刊) 7月：洪以燮『朝鮮科學史』(東京、三省堂)</p>
<p>1945(昭和20)年</p>	<p>4月：河野六郎『朝鮮方言學試放 - 『缺』語考一』(京城、東都書籍) ※ [未刊] 田保橋潔『朝鮮統治史論稿』</p>

【凡例】 기울어진 글씨체의 서명은 정기간행물을 나타냄.

※永島廣紀 <日本統治期の朝鮮における<史學>と<史料>の位相>(《歴史學研究》795, 2004年11月)所收의 <參考資料>를 기초로 보충한 것이다. 또 이 표를 작성하는데 桑野榮治氏의 귀중한 조언이 있었다. 사의를 표하고 싶다.